

# 3년만의 윤달... 화장 수요 늘어 영락공원 '몸살'

### 광주시, 개장 유골 20배 급증 하루평균 78건

### 예약제 아닌 선착순 신청접수에 유족들 불평

3년만의 윤달을 맞아 화장(火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락공원 내에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광주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윤달을 맞아 개장(改葬) 유골에 대한 화장수요가 평소보다 20배 이상 급증했다. 윤달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 건수는 860여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에 달했다. 윤달이 없는 평소에는 하루 2~3건 정도에 그쳤다.

광주시는 윤달에 대비해 올해 화장로 2기를 증설해 주중엔 3기, 주말에는 4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개장 화장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매장을 선호하는' 남도지역 특유의 매장 문화 영향이 크다고 영락공원 측은 설명했다. 광주·전남 화장률이 5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매장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과거 매장한 유골을 개장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에서는 '도시공사 측이 인터넷 접수가 아닌 선착순 접수로 화장신청을 받아 제때 화장을 하지 못했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예약제가 아닌 선착순으로 화장신청을 접수하면서 유족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일췌인 데다, 순서가 밀려 대기번호만 받고 되돌아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락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복지부 장사시스템인 'e-하늘나라'를 활용하면 하루에 30여건 밖에 수요를 처리할 수 없다"며 "밀려드는 수요 감당을 위해 교육지적으로 선착순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의 경우 운영시간을 하루에 2시간이나 연장하고 있고, 임시직원까지 고용해 운영하는 고충을 이해해달라"며 "우리도 예약제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대기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인터넷 예약제와 화장로 증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음력에서 계절과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 넣는 '윤달' 윤달에는 '윤달'이 들어갈 수 없다. 해맞이 행사를 하는 1월 37건(23.7%), 6월 22건

## 무등산 산악 사고 장불재서 가장 많이 발생

### 올 상반기 156건 중 64건

무등산 국립공원 중 장불재에서 산악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산악구조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등산 산악구조 156건 중 장불재가 64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끼등 18건(11.5%), 열매바위 16건(10.3%), 중봉 13건(8.3%) 순이다.

전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5건(40.5%), 구조인원도 1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명보다 48명(39.6%) 증가했다.

건수 등의 증가는 2015년 말 산악구조대가 생긴 이후 이용객 증가, 야간 구조출동 활동, 정상개방에 따른 인파 급증 등으로 풀이된다.

월별로는 정상개방이 있었던 5월이 40건(25.6%)으로 가장 많고 해맞이 행사를 하는 1월 37건(23.7%), 6월 22건

(14.1%) 순이다. 요일별로 주말, 휴일에 전체 건수의 60.8%(95)건이 발생했다. 시간대는 하산 시간대인 오후 1~4시가 82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등산 구조대는 "하산시 체력 저하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개인 능력에 맞춘 적절한 탐방코스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인원 중 50대 이상이 85명(50.2%)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40대 31명(18.3%), 10대 이하 21명(12.4%) 등이다.

상반기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은 158만2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46만8000명 보다 11만4000명이 늘었다.

마세운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산악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무등산 산악사고 구조 매뉴얼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산악위치표지판을 파악한 뒤 119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교육 발전 방향 대토론회 5일 광주시 북구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에 참가한 학부모와 시민·교직원 등이 광주교육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순천·광양시, 협력 상설사무국 설치

여수·순천·광양시가 공동 협력과제 실현을 위해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조중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은 5일 오전 광양시청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임사회에서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과제와 중점 추진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했으며 다른 시장들도 이에 동의했다.

상설사무국은 의장을 맡는 시에서 5

급 사무관을, 2개 시에서 6급 담당을 1명씩 파견해 운영할 계획이다.

3개 시 시장들은 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 광양시장은 5일 오전 광양시청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임사회에서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과제와 중점 추진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한 3개 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상설사무국은 의장을 맡는 시에서 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안전진단전문기관 3곳 중 2곳 위반

### 6곳 과태료 부과

전남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3곳 중 2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두달간 관내 63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지역 안전진단업체는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2012년 29개였던 것이 2013년 32개, 2014년 41개, 2015년 52개, 2016년 58개, 올해 63개로 증가했다.

전남도는 건실한 업체 육성과 부실한 업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 및 수행자격 적정 여부,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안전진단 측정장비의 검정·교정 이행 여부, 하도급 범위 이외의 불법 하도급 또는 타 업체 명의의 대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감진 표시 등 6개 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관리 실태가 매우 중요한 것이 2013년 32개, 2014년 41개, 2015년 52개, 2016년 58개, 올해 63개로 증가했다.

전남도는 건실한 업체 육성과 부실한 업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상임위 먼저 열어 추경 심의

### 예결위 구성 갈등 여전

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상임위를 먼저 여는 방식으로 광주시의 올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뒤늦게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결위 배분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 탓에 추경 심의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60회 임시회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애초 본예

산보다 4662억원 증액된 4조505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오전 내내 개의조차 못했다.

앞서 지난 3일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권을 두고 10분 만에 정회된 뒤 자정까지 속개되지 못했고, 4일 첫 상임위별 회의도 국민의당이 보이콧하면서 민주당만 참여한 채 반쪽짜리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교

통건설국 등 8개 부서 및 공기업에 대한 예산 심의와 광주시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광주호 호수 생태원 누리길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등 9건의 일반 안건 처리가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5일 추경안 제안설명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상임위별 심의도 표면적으로나마 정상화되게 됐다. 상임위 심의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의 필수절차인 '예결위 심의 위원 구성'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파행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기본조례 제34조를 근거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결위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는 대신 교섭위원 과반수, 즉 9명일 경우 5명, 11명일 경우 6명을 국민의당으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http://www.joytour.kr)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보험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차&가이드 경비(W30,000/인)

###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 포함사항: 무안~다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행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상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배너티, 싱글차지(3박~준독금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담\*  
다낭·후에·호이안 1,299,000원 부터

- 포함사항: 무안~다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행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상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배너티, 싱글차지(3박~준독금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

###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

###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